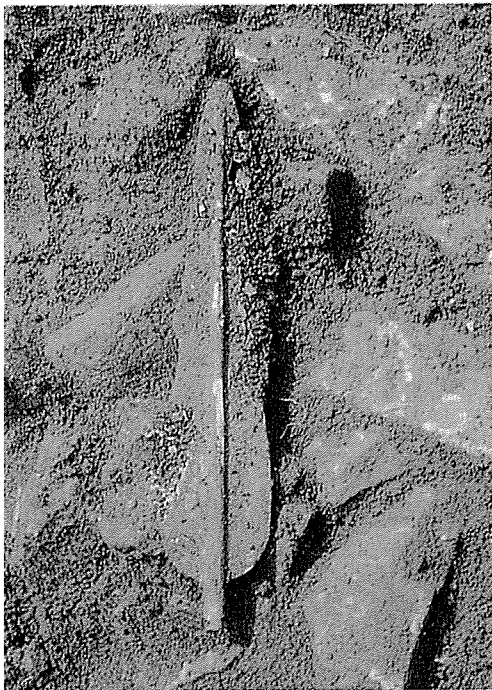


한반도 청동기 역사 '비파형 동검'이 새로 쓴다

세형 동검 이전의 청동기 문화 입증할 결정적 증거



평안남도 성천군 백원리 9호 고인돌 무덤에서 발굴된 세형 동검과 팽이토키의 연대를 측정한 학자들은 무척 당황했다. 북한학자들이 이 곳에서 나온 인간의 뼈를 시료로 사용하여 연대를 측정한 결과, 전자상자성공명법으로는 기원전 3368~522년 전후, 열형광법으로는 기원전 3324~465년 전후, 핵분열흔적법 역시 3402~553년 전후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무덤의 축조 연대가 적어도 기원전 14

세기 경으로 거슬러 올라간다는 것은 이곳에서 발견된 세형 동검 역시 기원전 14세기에 제작되었음을 의미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한국의 고대문화가 중국의 황하 유역이나 시베리아로부터 전해졌다는 지금까지의 정설을 뒤집는 것이었다. 중국에서 발견된 최초의 청동기는 주석이 6~10% 포함된, 감숙성 마가요문화(馬家窯文化)의 청동칼로 기원전 1800년에서 1900년 사이에 제작되었다. 그러므로 한반도에서 가장 앞선 청동기 문화는 기원전 12세기가 상한선이었다. 일본 학자들은 전국시대 말기부터 서한(西漢) 초에 걸쳐서 중국의 이주민들이 청동과 철을 한반도에 전했을 것으로 보고, 한국은 청동기를 거치지 않고 신석기에서 바로 철기시대로 넘어갔다고 추정했다. 이는 한국의 청동기 역사 시기를 보다 낮추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한국의 청동기 시대를 낮추는 이유는 순수한 한국의 청동기를 비파형 동검의 후신인 세형 동검으로 보고 기원전 10세기 후반부터 1세기까지 사용되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세형동검의 상한선을 기존 학자들이 생각하던 연대보다 10세기나 더 밀어 올리는 유물이 발견되자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 없었다. 세형

동검의 전신인 비파형 단검 문화를 기원전 12세기부터 기원전 6세기경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비파형 동검으로 인한 여러 모순점

하지만 성천군 백원리 9호 고인돌 유물로부터 측정된 결과를 인정한다면, 우리나라의 세형 동검이 비파형 동검보다 더 오래되었다는 모순점이 생기는데다가 기원전 12세기를 상한선으로 잡고 있는 시베리아의 카리스크 문화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역설까지 성립되어 버린다.

이 같은 모순은 당연히 세형 동검의 전신인 비파형 동검의 연한을 얼마까지 올려야 하느냐와 우리나라에서 청동기가 언제부터 사용됐느냐는 문제에 귀착한다.

황하 유역의 동검문화는 '고대의 중국 문화'로서 일반적으로 동주식 동검문화(東周式銅劍文化)로 불린다. 중국의 동주식 동검은 일반적으로 몸체가 길고 능형의 검코가 있다. 자루에는 2~3줄의 돌친 띠가 있는 것이 많고 자루 끝은 모두 작은 원판으로 되어 있다. 이에 비해 비파형 동검은 현악기의 일종인 비파와 비슷하게 생겨 이름 붙여진 것으로, 중국 동북지방에 있는 요하지방을 중심으로 요령지방에 주로 분포돼 있어 요령식 동검이라고도

비파형 동검은 중앙부에 돌기부가 있으며 돌기부 양쪽으로 날이 약간씩 휘어 들어가 있다. 경부는 그대로 이어져 검의 중앙부에서 등대를 이루며, 인부의 돌기부와 병행하는 등대 부분에는 마디가 있어 약간 도드라져 있다. 이 마디가 비파형 동검이 다른 동검과 구분되는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다.

한다. 중앙부에 돌기부가 있으며 돌기부 양쪽으로 날이 약간씩 휘어 들어가 있다. 경부는 그대로 이어져 검의 중앙부에서 등대를 이루며, 인부의 돌기부와 병행하는 등대 부분에는 마디가 있어 약간 도드라져 있다. 이 마디가 비파형 동검이 다른 동검과 구분되는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다. 또 비파형 동검은 중국의 동주식 동검과는 달리 조립식이며 검코도 없다. 이것은 비파형 동검문화가 중국의 고대문화나 오르도스식 동검의 북방계 문화와 차이가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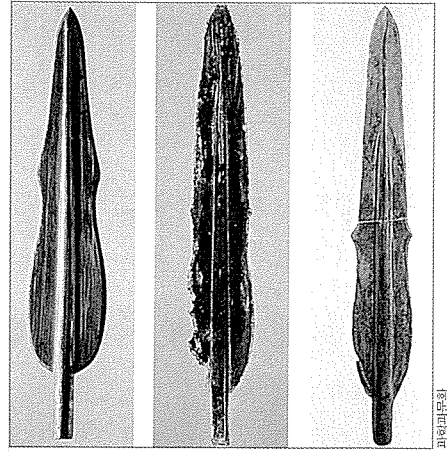
세형 동검은 동창(銅槍), 동과(銅戈)와 함께 주로 한반도에서 나타났다고 하여 한국식 동검이라고도 부르는데, 그 전단계가 비파형 동검이다. 비파형 동검은 길이 약 40cm이고, 폭이 3~4cm로 좁은 편이며 날이 잘 서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날씬하고 우아하며 그 선이 매우 아름답다. 여하튼 세형 동검의 제조연대가 최소한 기원전 14세기로 거슬러 올라간다면(북한 측은 세형 동검이 기원전 20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고 추정), 비파형 동검이 이보다 훨씬 오래 전에 출현했다는 예측은 당연하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 청동기가 등장한 시기가 이보다 더 오래되었다는 추정도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

러나 중요한 것은 증거를 확보하는 일이다. 결정적인 증거 없이 무턱대고 더 오래 되었다고 주장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이런 문제에 봉착해 있을 때 비파형 동검이 세형 동검보다 훨씬 오래 전에 만들어졌다는 증거가 발견되었다. 평양시 상원군 룡곡리의 4호, 5호 고분에서 비파형 창끝과 청동 단추가 발견되었는데, 그 유물들과 함께 나온 사람의 뼈를 전자상자 성공명법으로 측정한 결과 그 연대가 기원전 4539~197년 전후로 나타난 것이다. 따라서 청동 유물의 연대도 기원전 26세기로 거슬러 올라가게 되었다. 평양남도 덕천시 남양 유적 16호 팽이그릇 집터에서 나온 청동기 유적은 연대측정 결과 무려 기원전 38세기로 나타났다. 또 90년대 중반에 발견된 평양시 부근의 상원군 장리 1호 고인돌 무덤에서는 청동 끝을 비롯한 청동 제품과 활촉 70여 개, 군사 지휘봉인 별 도끼가 3개 나왔는데, 국왕 급으로 추정되는 이 무덤의 절대 연도는 기원전 3000년 전반으로 추정된다.

아연 섞인 청동검 현존 유물 가운데 최고

우리나라의 청동 제조기법은 같은 시대의 다른 어느 국가보다도 월등하였다. 강도와 기계적 성질이 약한 순동에 중요한 역



황해남도 금곡동, 평양시 서포동, 개풍군 해평리에서 각각 출토된 비파형 단검(왼쪽부터).

할을 하는 주석을 비롯하여 합금 원소(아연, 비소, 안티몬, 비스무트 등)를 첨가하면 강도도 높아지고 기계적 성질도 달라진다. 우리나라의 청동기는 구리와 주석뿐만 아니라 아연이 상당량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고대 초기부터 중국과는 다른 주조술이 도입되었거나 또는 개발되었음을 뜻한다. 우리 조상들이 아연의 특성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은 아연을 다루는 기술이 매우 발달했음을 의미한다.

아연이 청동기에 포함됐다는 것은 세계사적으로도 획기적인 사건이다. 고고학계에서는 아르메니아나 페르시아에서 처음으로 청동기에 아연을 포함시켰다고 보고 있지만, 공식적으로 세계 최초라고 인정된 청동 제품은 로마에서 만들어진 아연과 청동 합금인 청동전(靑銅錢)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아연 섞인 청동기는 현존하는 유물로 볼 때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청동기 시대에 일반인들은 청동 제품을 함부로 만들 수 없었다. 또한 당시의 최첨단 청동 제품은 위정자들만이 가질 수 있었다. 그 중에서도 청동 단검은 당시 적과의 육박전에 사용되었던 주된 무기로 통치 권력의 중요한 상징이었다. ☞

글_이종호 | 피라미드워즈 전문위원 · 과학저술가